

중국 인터넷 발전현황 통계보고

2007년 7월 CNNIC제공

- 중국 네티즌 1.65억 명, 4400만 명 모바일 인터넷 사용

2007년 7월 18일, 중국인터넷정보센터(CNNIC)가 발표한 <제20차중국온라인발전현황통계보고>에 따르면 2007년 6월 30일까지 중국의 네티즌 수는 1.62억 명에 달하고, 반 년 동안 평균 1분마다 100명에 가까운 네티즌이 증가하여 반년 동안 증가량이 작년 증가량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한다. 인터넷 보급률도 12.3%로 증가하였고, 초고속 인터넷 네티즌의 수는 1.22억 명에 달하며, 모바일 네티즌의 수량도 작년의 2.6배로 이미 4430만 명으로 조사되었다.

중국 내 도메인 총 수량은 918만 개이며 그 중 CN 도메인으로 등록이 대폭 증가하여 이미 615만 개에 달해 중국의 주류 도메인의 자리를 지켰다. 현재 중국의 사이트 수량은 131만 개에 달하고, CN 사이트 수량은 81만개로 연 성장률이 137.5%에 달하여 CN사이트 수량이 처음으로 COM사이트 수량을 크게 넘어섰다. 보고에 따르면, 현재 중국의 컴퓨터 수는 6710만 대로 2006년 말보다 770만 대가 증가하였다.

그 밖에 모바일 인터넷 요금 인하의 영향으로, 이미 27.3%의 네티즌이 모바일 인터넷을 사용했으며, 현재 모바일 네티즌 수는 4430만 명인 것으로 조사 되었다.

37.2%의 네티즌이 PC방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PC방에서의 인터넷 사용률은 반년 동안 500% 증가, 처음으로 직장에서 인터넷 사용을 넘었으며, 인터넷 사용 장소로 2위를 차지하였다. 중국은 인터넷 발전기의 전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인터넷 방식은 점차 조정 및 변화되고 있고, 점차 다양화되며, 인터넷 발전 수요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보고서에서는 인터넷 응용 현황을 전면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인터넷의 정보 수집, 오락과 커뮤니케이션 기능은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생활상의 도움을 주는 도구로서의 사용률은 비교적 낮다. 인터넷 정보의 대표적인 응용인 온라인 뉴스와 검색엔진의 사용률은 이미 3/4(76.3%)이다. 메신저와 전자우편은 커뮤니케이션의 기능의 대표적인 응용으로, 이 두 가지의 사용률도 비교적 높아 70%의 네티즌이 모두 메신저 기능을 사용하고 있으며, 55.4%의 네티즌들이 전자우편을 사용하고 있다. 인터넷의 오락기능의 대표적인 3가지는, 온라인 음악, 온라인 TV, 온라인 게임으로 사용률이 모두 매우 높다. 온라인 음악 듣기 사용률은 이미 68.5%, 온라인 게임을 해 본 네티즌도 이미 47%에 달한다.

이와 비교하여 인터넷의 생활 도움 기능으로써 사용률은 높지 않게 나타났는데, 중국 15%의 네티즌들만이 인터넷을 통하여 직장을 찾고, 25.5%의 네티즌이 온라인 쇼핑물을 이용하며, 3.9%의 네티즌만이 온라인으로 여행 예약을 한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최근 금융시장이 활발해 짐에 따라, 이미 1/5의 네티즌이 인터넷

뱅킹과 인터넷 주식을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중국의 인터넷 주식의 비율은 이미 인터넷 보급률이 높은 미국과 비슷한 수준에 이르렀다.

보고서는 청소년 인터넷 사용에 대한 분석도 실시하였는데, 청소년 학생 네티즌 수는 이미 6000만 명에 달하고, 학생은 네티즌 중 36.7%에 달하며, 매주 평균 인터넷 사용 시간은 11.6 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매주 인터넷 사용 시간이 20시간이 넘는 학생은 16.6%, 40시간이 넘는 학생은 5.9%이라고 발표하였다.

1. 네티즌 총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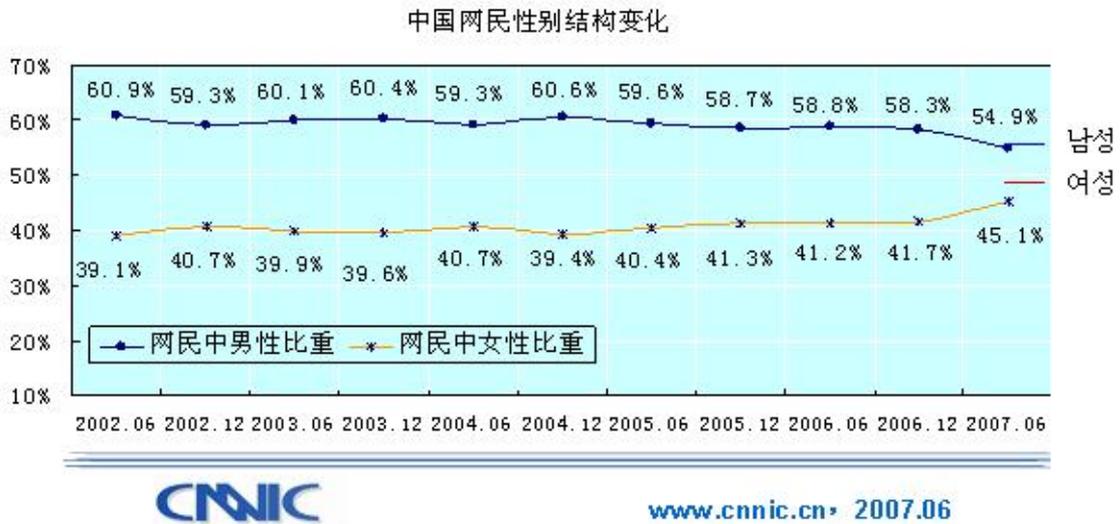


2. 인터넷 보급률



3. 네티즌 성별 구성

중국 네티즌 중 여성의 비중은 점차 증가되고 있다. 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네티즌 중 남녀 비율의 차이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2007년 6월까지 네티즌 중 여성 비중은 현재까지 가장 높은 45.1%까지 상승하였다. 하지만 아직 중국 인구 남녀 비율인 51.5%:48.5%와 같은 수준에는 못 미친다.



4. 네티즌 연령 구성

현재 중국 네티즌 연령 구성은 불균형으로, 젊은 네티즌들이 많다. 1.62억 네티즌 중, 25세 이하의 비율은 이미 51.2%로 반을 넘었고, 30세 이하의 네티즌 비율은 70.6%에 달한다.

